

오피니언

특별기고

안톤 솔츠



이 땅에 처음 발을 딛게 된 90년대에, 필자에게 한국은 일종의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처음 오는 유럽인이면 낯설어 할 많은 것들에 이전 제법 익숙해져 있다.

한가지 아직도 나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좀처럼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정치일 것이다. 정치의 장에서 서로 치고 받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낯설게만 느껴진다.

그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모름지기 사람은 주변에 최대한 적응을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는 경직된 채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언어도 이와 비슷한데, 예컨대 내가 자라온 독일에서 기원한 '아르바이트'(Arbeit)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일'이나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일을 총괄하는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의 의미가 시간제 노동으로 전이됐고, 발음이 너무 길었는지 속칭 '알바'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독일어 '아르바이트'에 기원을 둔

'알바'는 그 의미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표기도 변해 한국어로 모르는 독일인이 들으면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게 됐다.

마찬가지로 사회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그 모습을 조금씩 바뀌어가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사회는 이런 변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한 환영과 반대 중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흥미롭게도 필자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 한국은 이미 국제화에 열광하고 있었다. 90년대 최대의 이슈는 '세계화'였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길에서 외국인을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한국의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이란 간주하는 지금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날이 언젠가 도래할 것인가?

병과 딱지에 대한 상념

독일은 이민과 융화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엄연한 다문화주의 사회로 자리매김했다. 예컨대, 필자가 자란 함부르크시만 해도 인구의 10% 이상이 독일 출신이 아니다. 그 어느 쪽의 입장에서든 융화는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에 맞서는 것은 불가피한 것에 저항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국제화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을 진정한 사회일원으로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한국사회의 이중성을 필자는 많이 경험해 왔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묵음'에 해당하는, 짙은 건 걸질일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와

독일은 이민과 융화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엄연한 다문화주의 사회로 자리매김했다. 예컨대, 필자가 자란 함부르크시만 해도 인구의 10% 이상이 독일 출신이 아니다. 그 어느 쪽의 입장에서든 융화는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에 맞서는 것은 불가피한 것에 저항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국제화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을 진정한 사회일원으로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한국사회의 이중성을 필자는 많이 경험해 왔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묵음'에 해당하는, 짙은 건 걸질일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와

얼마 전에 광주시의 국제화를 연구하고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뉘신 분들이 꽤나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지난 8년간 이곳에서 국제화에 나름 일진해 온 필자로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못내 아쉬워 불만 섞인 질문을 던지게 됐다.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몇이나 되는지 물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 규모의 행사들, F1 행사, 여수 엑스포, 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는 질문에 청중들은 묵묵히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필자는 그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위의 행사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국제화를 향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과정에 개입된 외국인은 하나도 없다. 마치 남자들끼리 모여서 최선의 출산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 말아야 해 못하겠지만은, 아무리 한해도 타살공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결국 병에 붙은 라벨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화라는 '딱지'를 갖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병에 든 내용은 마시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태도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국에는 한국이 평화로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추락 대오 각성해야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강조해 온 진보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년 대비 4~6계단이나 추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16개 교육청 중 11위(7.61점·4등급)를 차지해 전년도 7위에서 4계단 하락했다. 도교육청은 8위(7.79점·3등급)로, 전년도 2위에서 6계단이나 추락했다. 또한 전남도는 전년 12위에서 15위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으로 뒤처졌고, 광주시는 전년에 비해 한계단 상승한 4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한 점수다. 낮은 청렴도는 공직자가 해서는 물론 도덕성에 흠결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외부청렴도 하락은 민

주목되는 광주도시공사 고강도 자구 노력

지금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도시공사가 고강도 자구책을 통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4일 도시공사 측이 발표한 '초일류 공기업을 도약'을 위한 경영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기구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 자산 매각 등으로 재무 성과를 크게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관료화되고 정형화된 기존 조직을 험업 위주로 정비하기 위해 전체 23개 기구를 2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 69명 중 22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468억 원대의 매각가능 자산을 조기에 팔고, 2958억 원대의 토지를 조기 분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임대물기간의 절반이 넘는 600여 세대의 주택에 희망자에 한해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영업수지비율 등 재무 성과를 매년 10% 이상 증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지탄을 받아 온 도시공사의 이러한 자구책은 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재정 위기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빚으로 운영하는 도시공사의 속성상 경영 선진화가 계획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채비율은 257% 수준이고, 사채비율도 147%에 달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형편이다.

투자자금 미회수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외의존형 사업구조와 수익성이 낮은 관리사업 위주에 따라 재무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사업과 수익사업, 장기계속사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도시공사는 스스로 진단한 이러한 과제들을 면밀히 따져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쏟아야 한다. 더욱더 내실을 기하고 미래를 내다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얘기다.

중고칼럼



박덕규

일일삼성(一日三省)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 반성하는 거룩한 성심(聖心)이 있다. 하루 세 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참회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무척 중요하다 하겠다.

하물며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더욱 참회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송년회 등 모임 참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정리하는 기회를 한 번 가져보자. 그렇다면 왜 참회 반성이 중요한가? 이는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기

때문이다. 참회 반성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잘잘못을 생각하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내일 또는 새해를 희망을 갖고 맞이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원불교 경전에 이런 법문이 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 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나, 살·도·음(殺盜淫)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 주실 원력(願力)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참회 반성을 하게 되고, 또한 참회 반성을 하면 희망을 더욱 키워가는 것이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잘못된 것

로 과파하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드는 힘이 참회 반성을 함으로서 생겨나고, 참회 반성이 바로 희망이 되는 까닭이다.

우리는 그동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기치 아래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과정과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성공만을 향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가다가는 고베 폴린 말처럼 되기 십상이다. 신나게 앞만 보고 달려 그 고베 폴린 말이 때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주위에 주는 피해가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자,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자, 한 해를 보내는 지금 뒤돌아보고 옆도 쳐다보고 저 멀리도 바라보고 바로 앞도 세밀하게 살펴보는 참회 반성이라는 안목이 있으면 좋을 듯싶다.

모든 독자들이 참회 반성을 통해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더욱 희망차게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원불교 교무)

참회 반성 통해 희망을 키우자

기고



문평섭

세태당 한대를 이미 넘어선 마이카시대의 도래 등 물질적인 풍요와 이로 인한 활동량의 절대 부족, 영양 과잉 등으로 비만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이 심각해지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부러 경비와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자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건강과 즐거움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난 10년간 5배에 가까이 오른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생계비 중 주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자가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에측할 수 없고 치명적이기까지 한 자연재해들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너 나 할 것 없이 녹색자구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자전거 현주소는 어떠한가? 통계청과 한국교통연구원 의 자료를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540만 대인데 비해 자전거는 800만대에 그치고 있다. 1인당 자전거대로는 0.19m, 인구대비 자전거 보급률은 16.6%로 독일의 8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자전거 교통수단 보급률은 독일이 10%, 우리나라는 1.2%로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1% 높아지면 에너지절감 및 환경영향 비용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르며, 교통혼잡 해소와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

상과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편익은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녹색 대체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법규가적으로는 2010년부터 10년에 걸쳐 1조2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자전거도로의 활용과 신설로 전국을 네트워크화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 완공예정인 총연장 1692km에 이르는 국토종주 4대강길 완성은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의 한 축으로, 향후 전국순환망과 내륙연계망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 광주시 역시 '시민이 행복한 자전거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을 포함한 시

자전거로 만드는 행복한 도시

미혼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

필자의 후배가 몇 년전에 미혼모가 되어 한동안 맘 고생을 했고 어렵사리 아이를 키운 일이 있었다. 지금은 가족들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미혼모 초기에는 아이를 도저히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은 적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 기사를 검색하다가 참으로 가슴 훈훈한 뉴스를 접했다.

그 내용인즉 미혼모들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대학생과 국민은행 사내동아리 회원들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돈으로 수익을 기부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력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시 약사회도 미혼모를 약국의 전신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서울시 한 부모가족지원센터와 맺었다고 한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에서 미혼모들이 별도로 채용해 근무케 한다는 지원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최근엔 기업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미혼모를 돕자는 캠페인이나 모금운동 같은 것을 펼치기 하거나 한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만 높이고 홍보의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반짝 관심을 표하는 식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이나 서울시 약사회 같이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다면 미혼모들은 용기백배할 것이다. 즉 미혼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간절한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기를 낳아 잘 기르는 게 곧 우리 사회를 밝고 희망차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회적 관심 하나 때문에 아기를 낳은 미혼모들을 회사에서 내몰고, 취업도 거절한다면 그런 너무나 잘못된 사회이다.

이제는 기업들의 마인드도 바뀌고 사회적 편견도 조금씩 줄어든 걸로 안다. 미혼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일자리이니 만큼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서울시 약사회처럼 미혼모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배려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

無等鼓

다도해의 작은 섬 소록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소록도보다 스무 배나 큰 거금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록도 바로 밑에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거금도는 우리나라에서 열번 짤로 큰 섬이다. 인구도 5000여명도 조금으로 치면 웬만한 면단위를 능가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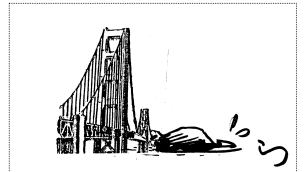
'박치기 왕' 김일 선수의 고향이 고흥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거금도라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고, 명창 동초 김연수의 고향이 거금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도 거금도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김일 선수의 덕이 크다. 김일의 고향 사랑은 남달랐다.

항정이 선도하면 시민은 따르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진정한 행정의 완성엔 정책의 입안한 공직자와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적인 목소리를 기다려본다.

(광주시 도로과장)

거금도



거금도가 바이벳트 2 개가 연달아 열리며 주민들이 들떠있다. 16일 거금대교가 9년만에 개통되고 17일에는 김일기념체육관이 문을 연다. 관광객에게선 숨겨진 거금도의 속살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민들은 섬 생활에 따른 불편이 사라지고 관광기가 들어왔다. 내륙인 농동보다 전기가 먼저 들어 온 섬에 대한 주민들의 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智喆	논설주간 申港梁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광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조선사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